

#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대하여(下)

- 1910~30년대 충남예산의 도시공간변화를 중심으로

## Urban Spatial Structure of Modern City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under the Japanese Rule

- Focused on Yesan, South Chungcheung Province in Korea



김득수 / 미전·삼대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euk-soo, KIRA

###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공학석사
- 1992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1999년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직무 대행
- 1989년 서울시장 예산문제회관 충청남도 서부지역 면허시험장 외 다수

## 4. 정치경제학적 타율적 공간과 사회적 자율적 도시공간의 성립

### 4.1 식민사회의 정치적 공간

일제강점기 식민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권력 속에서 은행, 백화점, 상점, 관공서들은 식민지 근대도시에 있어서 전형적인 풍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지방소읍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게 된다. 예산역과 공주를 잇는 1급도로를 따라 예산군청, 보통공립학교, 금오산일본신사와 헌병대는 지리적으로 높은 북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서쪽 진입부는 호서은행과 주재소(경찰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예산극장과 시장이 랜드마크를 형성하며 동서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은행앞 광장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충남자동차운수, 우편소, 학교(예산농림학교), 성당, 사원, 병원 등이 배치되었다. 한편, 동쪽축을 따라 본정통사거리를 중심으로 식당과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금오산 일본신사, 호서은행과 군청과 주재소 등은 그 중에서 높은 지대 위에 있었다. 이들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중심점인 삼각형 대지 혹은 높은 지대에 재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칭적 입면

과 높이, 단면, 파사드의 원근법적 접근 등을 통해 다른 건물보다 더욱 우월하게 서 있었다. 보이기 위한 또한 보여지기 위한 파사드는 항상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척도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원근법적 경관속에서의 거대한 기하학적인 이미지(건물)는 오브제 그 자체이고, 무의식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정치적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며, 시민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공간이며, 멀리 금오산에서 보이는 일본신사를 통해 충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권력과 국가의 지배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앙리 르페브르의 주장과 부합된다<sup>39)</sup>. 특히, 일본신사, 보통공립학교, 주재소와 헌병대는 예산 시가지(본정통사거리)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직선거리위에 있었다. 주재소는 호서은행 건너편 가장 넓은 도로인 1급도로를 따라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동헌을 철거하고 입지한 헌병대는 1급도로와 본정통사거리로 가는 남북가로선상에 있었다. 헌병대 및 주재소와 시민(노동계급) 거주지와와의 최단거리는 신속한 진압군대의 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40)</sup>. 실제로 일본신사가 위치했었던 금오산 중턱에서 촬영된 사진(〈그림10〉 참조)에서 시가지와 예산천 건너편까지 한 눈에 바라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감시·방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들을 통해 가장 절묘한 식민자본주의적 도시공간을 만들어냈다.

더욱이 주재소와 헌병대를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 거주지가 동서로 양분되는 비균질화된 도시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이 거주한 서부지역은 구획화된 신작로 사이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이 거주한 동부지역은 구획정리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공립보통학교는 과거 조선시대 왕의 위패를 모시고 참배했던 객사 옆을 지나 옛동헌을 철거하고 군청과 나란히 본정(통)사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후에 일본신사가 학교 안에 세워지기도 한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 대한 지식계몽이자 신문명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며, 내선일체를 표방한 황민화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정당화를 알리는 홍보 공간이었다. 장 보들리아르는 근대적 도시공간의 특징으로는 일터와 주거공간의 분리, 새로운 직업의 탄생, 서양식학교의 건립, 소비문화의 변화 등을 말했다<sup>41)</sup>. 일본인들은 이 모든 것을 식민지공간에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시도적 경관조망은 계몽과 감압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상적 근대적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그림 10〉 참조).

## 4.2 근대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에서 예산시민들은 소비와 생산활동을 통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 공간에 실현시키려는 근대시민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남철도역사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설계당시의 역위치가 읍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선정되자 자본가(지식인)들은 철도를 최대한 읍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래서, 기성회(회장 성낙헌)를 조직하고 1만여평의 정거장 터를 경남철도회사 측에 기부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또한, 철도개통 후에도 예산역을 있는 기존도로를 1급도로로서 확장·개통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sup>42)</sup> 결과적으로는 행정, 검찰, 교육시설 등이 도로주변에 재배치되면서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 주도로 이루어졌던 철도사업은 한인자본가들이 공공시설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다시 일본정부에 기부했다는 점과 도로개설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을 하나의 생산·소비 그리고 자본의 축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 철도가 지배자들의 자본의 축적수단이 아니라 자원과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서 이용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본주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민에게 철도는 자본축적과 인구의 효율적 이동수단이었고, 철도·도로를 통해서 생산된 상품들을 운반하고 도시노동력에 의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집합적 소비재를 도시공간상에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예산의 경우, 철도와 도로개설과 자본과 인구의 유입이 서로 대응되면서 상설점포·시장들(생산·소비수단)은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 건너편까지 아케이드처럼 길게 이어지면서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거주지가 예산천 너머로 까지 확산된다<sup>43)</sup>. 가로의 양편에 줄지어 서있는 상업점포로부터 각종 먹거리들(한·중·일·양식), 벽과 삼점, 거리에 나붙은 광고들, 상점간판들을 통한 오감(五感)의 경험들과 각종 근대식 물품들은 최신기술과 진보의 상징이었으며, 서구의 파사주(Passage)를 대변하는 볼거리들과 체험들로 가득찬 소비와 문화, 놀이의 공간이었다<sup>44)</sup>. 이러한 생산·소비를 통해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극장(1935), 여관(1920-30년대) 등과 같은 집합적 소비재들이 상점거리주변을 따라 재생산되었다<sup>45)</sup>. 이러한 과정은 근대도시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율적이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된 자

39) Henri Lefebvre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onald Nicholson-Smith, Trans., Blackwell Publishing, pp.360-363.

40) Walter Benjamin (1999) *The Arcades Project*,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tr., the Belknap Press: Harvard Univ, pp.10-13.

41) Jean Baudrillard (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 문예, pp.52-85.

42) 이러한 계획 및 건설과정에서 예산시민 자신들의 손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철도개통이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시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철도 개통과 예산의 장래 (1922) 매일신보(1922.07.02), 동아일보(1922.06.14).

43) 이항복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정원년(1911, 행정자치부 기록보존소) 지적도에 지목이 대지를 건물로 복원한 지형도와 소화 2년(1927)에 발행한 도시계획 지형도에 '목(木)'이라고 표시한 곳에 시장이 들어가 있었으며, 본정통 사거리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상업종사자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시가지확대 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1926년 3월 20일 예산리 201번지 본정통 사거리와 쌍송나무사이에 형성된 기존시장을 새로 건설한 예산리 346-13의 17필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게 된다.

44) Susan Buck-Morss (1991) *Dialectics of Seeing :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MIT Press, pp.110-120.

45) 동아일보(1927.11.02); 동아일보(1927. 05. 08); 조선일보(1933.11.14); 조선일보(1936.07.29).



울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그림 8〉, 〈그림 10〉 참조).

게다가, 1931년 동아일보에 의해서 주최된 주요도시 순회좌담(취재기자 이만찬)에서 8명이 예산의 미래상에 대한 난상토론을 하였다(〈그림 11〉 설명 참조). 비록 이들의 제안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자본주의사상을 담고 있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의제는 상공발전책(商工發展策), 교육문제(教育問題), 공회당문제(公會堂問題), 차가임문제(借家賃問題), 전기문제(電氣問題), 수조문제(水組問題), 풍기위생(風紀衛生), 농촌진흥책(農村振興策), 시가정리(市街整理), 도시개량(都市改良), 교통문제(交通問題), 물가조절책(物價調節策), 충남도청문제(忠南道廳問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산 지식인들은 구시가지의 상업적 기반과 철도역사 주변 신시가지와 연계 및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도로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제안했으며, 농업과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sup>46)</sup>. 여기서 우리는 생산과 소비 및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생활수단(도로, 시장, 전기공급, 교육, 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도시공간에 새롭게 재배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활동과 노동력을 재생산에 필요한 집합적인 소비공간이 절실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근본적인 주장은 자본주의적 사회에 맞게 도시공간이 재편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림 11〉 순회좌담회 참석자 (동아일보 1931. 2. 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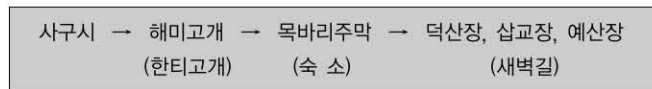
1. 순천의원장 이종대 2. 곡물상조합장 성관영 3. 예산신명유치원 원감 김영경 4. 예산교회 목사 심명목 5. 예산면장 이현세 6. 예산면협의회원 김흥모 7. 실업가 이재찬 8. 호서기자맹맹 성낙훈

며, 집합적 소비재(생활수단, 물적터전)를 중요시 했던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관점과도 부합된다. 이후 시민의 활동은 정치적 상황하에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식산은행지점 및 도립병원의 유치요구(1934), 공동변소설치 및 도로와 하수도 정비요구(1938), 읍승격 제의(1939) 등 도시변영을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전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sup>47)</sup>. 종합해보면, 예산의 근대도시공간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와 더불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자본축적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맞춰 의도된 상품과 자본의 생산공간이었던 것이다.

### 5. 근대도시로의 발전요인

예덕상무사(보부상)는 덕산장시를 중심으로 보부상이 취급하는 품목의 주종물품은 생어물로 서해안 사구시(현재의 서산시 고북면 사거리) 포구에서 거래되었고, 부상(負商)들이 덕산장날 전일에 사가지고, 해미고개(한치고개)를 넘어 목بار리주막<sup>48)</sup>(〈그림 3〉 참조)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덕산장에 당도하여, 한 시세를 더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였다고 한다<sup>49)</sup>(〈표 8〉 참조).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서 식민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물품들을 조운을 통해 보부상들에 의해서 내포지방으로 운반하는 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보부상들에 의해서 곡물들이 해안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 도로와 철도의 건설은 조선의 각종 물산자원을 획득 운반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을 근대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표 8〉 보부상들의 물류노선



일본인들은 철도와 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일정간격으로 대전, 군산 등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 도시들을 이용하였다. 후자인 예산의 경우, 기존의 도로를 확장한 공주와 청양 그리고 홍성과 예산역을 연결하는 1급도로가 1923년에 경남철도 예산역사와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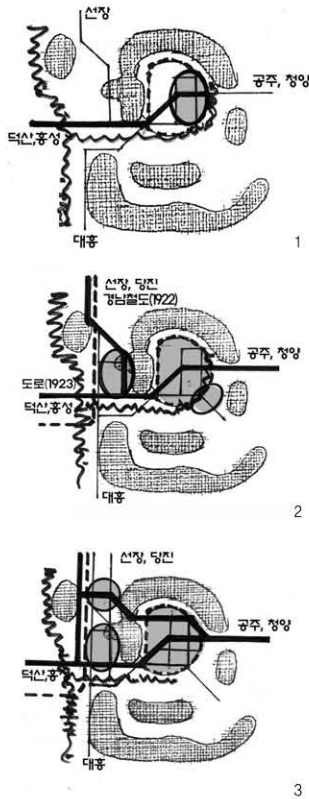
46) 이종대는 공업발전을 위한 공장설립할 것, 성낙훈은 도시정리를 위해서 서울과 같이 건축회사를 설립할 것, 성관영은 도시안에 공동정화호와 공동변소를 설치할 것, 성관영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예산시가지를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설과 100여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공회당을 건설할 것, 이현세는 예산에 하천정리 필요성과 특히 삼거리(三巨里)방면에 하천정리 등을 제안했다. 성낙훈, 김영경, 심명목 등은 예산역 중심으로 모든 공공시설들을 이전하지 못한 것과 교육시설부족을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31. 02. 08).

47) 조선일보(1934. 09. 06); 동아일보(1938. 12. 08); 동아일보(1939. 07. 19).

48) 주막을 경영하던 한 노파가 이곳에 다시 목로술집을 만들고 주막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 목바리라 부르게 되었다. 최문휘 (1988) 충남토속지명사전. 서울: 민음사.

49) 유진룡 (1984)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리지 않아? :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김택준 편저). 서울: 뿌리깊은 나무.

50) 도로의 경우, 1911년 4월 道路規則, 1913년 5월 道路취선규칙을 제정해서, 도로표준을 1등(노폭 7.3m), 2등(노폭 5.5m), 3등(노폭 3m), 등 각각 3종류로 나누고, 도로의 성격과 축조 및 유지수선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 1등도로의 경우, 서울과 도청소재지, 군대주둔지, 개항장, 철도정거장을, 2등도로는 도청소재지, 인접도청, 관할군청, 향만, 철도정거장, 3등도로는 군청과 인접군청, 철도정거장등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특히, 1등과 2등도로는 관리와 축조 유지보수를 모두 총독부에서 맡아 시행하였다.



〈그림 12〉 예안의 시가지 변화과정

1. 개항기-1920년대 2. 이전 1920-1945년(해방이전) 3. 해방후-1970년대

다<sup>51)</sup>. 결과적으로 철도역사가 있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공간으로서, 선형도시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다른 도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분지가 가지는 도시적 한계에서 벗어나, 도시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그림 12〉 참조). 결국, 예안은 철도와 도로라는 물리적 수단이 없었다면 발전될 수 없었던 기형적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안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다. 내포지방 물류의 중간거점이었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그로 인한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안은 사구시 해미고개, 목바리주막, 덕산과 삼교를 연결하는 물품교류경로와 경남철도와

십자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따라 대전, 천안, 온양과 같은 상업도시 및 교통도시들과 기존 해로를 연결해 주는 중심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면통합(1914) 이후, 1931년까지 2,000~2,500세대 정도 증가했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요인(3,200세대)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인구 증가는 공주, 논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즉, 철도부설 이후에도 타 지역사람들이 장거리로 이동할 만큼 각 지역이 우위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균등한 인구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탈농촌화(deruralization)를 통해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철도부설 이후 장시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권의 중심이 되는 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규모가 작은 시장은 큰 시장에 통합되든지 개시일이 변화되었던 것이다<sup>51)</sup>. 즉, 철도부설로 시장과 시장사이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더 이상 상인들이 장시를 오가며 행상을 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상설점포가 도시공간을 점유하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과거의 네트워크화 된 상업도로와 철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상권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 집적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 극장, 병원(약국, 한약방), 여관과 같은 생활수단을 수용하면서 상설점포와 시장들은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을 따라 확대 재생산되며, 동시에 거주지가 예산천 너머에 까지 확산되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와 철도부설,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상업네트워크를 통한 자본의 축적 등이 예안을 근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와 식민시대라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예안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와 변화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안은 조선후기 보부상의 상업활동의 중심상업도시였으며 근대도시의 길목위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주체는 바뀌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러한 역할이 계속 유지되었다. 경남철도개통(1922년) 이후, 철도역을 연결시키는 1급도로(1923년)를 확장 건설하게 되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선형도시구조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도로를 따라 주재소, 헌병대, 군청, 은행, 일본인 학교 등과 같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들에 의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물류 중심도시로서 자본이 축적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민을 위한 소비·생산공간으로서 본정통 사거리에서 예산천부근까지 상설시장과 상업점포들이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를 양분시키면서 주거지와 시가지가 점차 예산천 너머로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예안은 근대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자율적 공간과 일본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타율적 공간이 대응되면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인들이 도시에 유입되고, 그들을 위한 생활수단(군청, 주재소, 헌병대, 학교, 주택, 도로, 일본인상점, 일본신사, 병원 등)이 본정통사거리와 1급도로를 따라 필지의 분할과 병합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들은 도시이상 자체도 변화된 일본인들에 의한 정치적 타율적 공간이었다. 즉, 철도, 도로, 관청과 주재소와 같은 공공시설물과 같은 집합적 소비재는 엄격한 통치와 원활한 상품생산 및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때문에 재생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즉, 도시기반사업의 주체가 한국인이기보다는 일본인이었다.
3. 그러나 예산의 지식인들은 도시문제와 발전방향 등을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경남철도역사를 예

51) 박호제 (2004) 충청남도 내포지역 지역엘리트의 재편과 근대화 (2); 조선후기~일제시대 내포지역 시장의 형성과 변화,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7, No.2, pp.101-147.



산근처로 재배치시키는 문제, 역사 주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의 도로를 확장, 그리고 예산내 시장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를 실현시켰다. 그들의 주장이 한계성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식인들은 농업 및 상업활동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 시설 등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비록 도시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일본인들에게 주장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청회의 시작점에 있었다.

4. 예산의 정치적 도시공간은 1급도로를 따라 비교적 높은 지대와 큰 필지 위에 세워진 주재소, 금오공립보통학교, 군청, 현병대, 공립보통학교, 금오산신사 등이 본정통 사거리를 내려다보며 정치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금오산신사, 공립보통학교(1930년 중반에 신사가 학교내에 세워짐), 주재소, 현병대, 군청 등은 예산시가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원근법적 구도를 이용해서 시각적 대칭감과 높이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자의 우월성과 존경심을 느끼도록 했으며, 주재소와 현병대는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본정통사거리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상에 입지해 있었다. 이는 국가의 지배전략을 도시공간상에 재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서울 한국은행앞 광장과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육조거리에서 나타나는 공간화된 권력의 시각적 이미지와 동일하다. 이들은 식민자본주의 도시를 투영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도시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5. 결국, 일제강점기의 예산의 모습은 시민들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학교, 주택, 병원, 극장, 상설점포, 상설시장 등)과 자국민과 한국인을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구획정리, 필지정리, 철도, 주택, 도로, 주재소, 현병대, 군청, 신사, 일본인학교, 일본인병원, 일본인점포 등)들이 서로 충족되면서 자율적·타율적 도시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들 모두는 주체에 상관없이 일상의 공간에 편입되어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도시번영을 위해 이 모든 생산수단들이 자본을 축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예산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

#### 참고문헌

1. 김득수 (2001) 이기봉씨(1906년생)와의 인터뷰: 예산읍내 일본인거주자 자료요청.
2. 김득수 (2003) 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충남예산지방의 근대적 도시변화,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영재·한동수의 2인 (2001) 해방 이후, 서울과 평양의 도심공간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7권, 10호, pp.31-42.
4.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戶口總數: 太祖 4年(1395) - 正

祖 13年(1789) 戶口總數.

5. 조선후기지방지도(충청도편)·大興郡지도(奎10429)·덕산군지도(奎10412)·예산군지도(奎12157) (1872) 규장각 소장; 도시계획지도(1927.01.30), 조선총독부제작, 수원국립지리원 소장.
6. 최병두 (2006)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7. 최신조선대지도(明治44,02,28) (19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충청남도 교통도 및 산업도 (19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주교리, 산성리 대회리 등 (明治40, 大正1, 10,15; 측량완성 1911) (191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예산군면, 대흥군면, 덕산군면 797 (1914) 지방행정면폐합에 관한 1~35철(충남도) 문서번호 23, 필립번호 14, 5, 1-5, 조선총독부제작.
9.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10. 禮山郡誌(昭和12,03) (1936) 禮山郡 教育會.
11.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全)(昭和2) (1926) 京城副業世界社.
12. 忠南産業誌(大正10) (1921) 田中市之助, 大田: 大田實業協會.
13. 忠清南道發展史(昭和7) (1932) 大田: 湖南日報社.
14. 忠清南道長官 內務部長官 (1913) 面廢合關スル件朝鮮總督府記錄, 行政自治部 政府記錄保存所所長.
15. 通商彙報(明治26,10,21) (1889) 京畿道及忠清道地方狀況並二農況視察報告, 在京城領事館報告.
16.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Edward Arnold.
17.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onald Nicholson-Smith, tr.) Blackwell Publishing.